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Division of Nursing Science,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총 20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r=.451, p<.01$)과 문화적 공감($r=.582, p<.01$)은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공감($\beta=.422, p<.001$), 다문화 인식($\beta=.222, p<.001$)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40.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개발할 때 다문화 인식보다는 문화적 공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hat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s for improving cultural competence by identifyi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from grades 1 to 4 who were enrolled in two nursing colleges in Gwangju and Chonna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8. The 201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5.0 for windows. Multicultural awareness($r=.451, p<.01$) and cultural empathy($r=.582, p<.01$) had high positive correlations with cultural competenc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cultural competence were cultural empathy($\beta=.422, p<.001$) and multicultural awareness($\beta=.222, p<.001$) orde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4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strategies to promot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should be developed, and these strategies should focus more on cultural empathy than on multicultural awareness.

Keywords : Multicultural Awareness, Cultural Empathy,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Effect

본 논문은 송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a Kim(Songwon Univ.)

email: gh6081@hanmail.net

Received May 13, 2020

Revised June 4,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으로 2015년 전 인구의 2.6%에서 2018년 전 인구의 3.1%로 증가하여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3년 사이 287,849명이 유입되어 1,615,5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히 대상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유입을 동반하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많은 분야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역량은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전문직 종사자에게 더욱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2].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임상 환경에서 상당수 외국인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바[3],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이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맞는 개별화된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간호역량을 갖추어가는 시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간호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자발적 인식과 공감적 민감성을 토대로 건강신념, 건강관습 및 문화건강 관련 지식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유와 체험을 체득하여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간호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으로[4],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간호대학생 시기에 갖추어으로써 향후 간호사로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도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은 능력, 개방성, 유연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속성의 선행요인으로 인지적 영역은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 정서적 영역은 문화적 민감성, 행위적 영역은 문화적 기술, 환경적 영역은 문화적 경험이 있다[6]. 문화적 인식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은 인지하는 것,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 문화적 민감성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 문화적 기술은 대상자의 문화적 신념, 가치를 이해하며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문화적 경험은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는 환경이다[5]. 간호교육 프로그램 내에 이들 선행요인에 대한 내용이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으로 다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좀 더 확실시될 것이다.

간호교육현장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에서 제시한 ‘국내·외 보건의로 정책변화 인지 역량’[6]의 한 부분으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교양이나 선택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하고[7],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또한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인지적 영역으로는 다문화 인식[8-11], 간호전문직관[12], 세계시민의식[13], 정서적 영역으로는 문화적 민감성[14], 문화적 공감[13-15], 다문화 태도[11,15], 다문화 효능감[11,15] 등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적 영역으로는 다문화 인식이[8-11], 정의적 영역으로는 문화적 공감이[13-15]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16], 다문화 인식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의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8-11], 다문화 인식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8,11].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대상자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과 대상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이다[19]. 문화적 공감은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다문화 대상자와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2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와 공감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3-15], 문화적 공감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3,15].

간호대학생은 향후 간호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간호역량을 제한된 4년이라는 대학생 시기에 갖추어야 하므로, 요구되는 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 동안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된 요인들 간 통합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강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각각의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인지적 측면인 다문화 인식과 정서적 측면인 문화적 공감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적 공감은 최근 들어 연구된 요인으로 선행연구 대부분이 문화적 공감이 아닌 일반적 공감을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문화적 역량,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간 상관성을 알아보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간 통합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광역시에 소재한 1개의 간호대학과 J시에 소재한 1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인 13개로 산출한 결과 189개였으며,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보인 9부를 제외한 201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

었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득하였다.

2.2 연구도구

2.1.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 도구는 Han과 Chung[4]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3$ 이었다.

2.2.2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은 Kim[21]이 개발한 청소년 다문화 인식 척도를 간호학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CVI는 .96으로 확인되어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93$ 이었다.

2.2.3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 척도는 Wang 등[22]이 개발한 SEE(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를 Kim[23]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고,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적 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79$ 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공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정도

다문화 인식의 평균은 3.52점(SD=.46), 문화적 공감의 평균은 3.55점(SD=.46), 문화적 역량의 평균은 3.67점(SD=.57)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01)

Variables	M±SD
Multicultural Awareness	3.52±.46
Cultural Empathy	3.55±.46
Cultural Competence	3.67±.57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정도

문화적 역량은 나이와 학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 결과, 나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보다는 2학년과 4학년이 유의하게 높았고, 3학년보다는 4학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없었다[Table 2].

3.3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인식($r=.451, p<.01$)과 문화적 공감($r=.582, p<.01$)에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Degree of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Range	Cultural Competence	
		Mean±SD	t / F Scheffé
Age	≤20	3.27±.49	3.813 [*]
	21~30 ≥30	3.46±.62 2.81±.36	
Sex	Male	3.51±.57	-1.553
	Female	3.34±.50	
Marital status	1st	3.08±.45 ^a	10.627 ^{***} a<b,d, c<d
	2nd	3.49±.45 ^b	
	3rd	3.24±.61 ^c	
	4th	3.60±.60 ^d	
Religion	Catholic	3.14±.66	1.142
	Christianity	3.31±.55	
	Buddhism	3.36±.50	
	None	3.42±.51	
Foreign friends	Yes	3.03±.54	-7.703
	No	3.03±.43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3.32±.55	-1.336
	No	3.43±.60	
English level	None	3.35±.44	1.119
	Little	3.28±.55	
	Moderate	3.40±.64	
	Well	3.53±.37	
Other languages level	None	3.36±.53	1.431
	Little	3.28±.50	
	Moderate	3.38±.66	
	Well	3.64±.37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38±.53	.329
	No	3.35±.61	
Interests in multicultural	None	3.54±.57	1.721
	Little	3.29±.63	
	Moderate	3.35±.50	
	Very much	3.47±.41	

* p<.05,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01)

Variables	Multicultural Awareness	Cultural Empathy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Awareness	1		
Cultural Empathy	.480 ^{**}	1	
Cultural Competence	.451 ^{**}	.582 ^{**}	1

**p<.01

3.4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나타내는 사

회인구학적 변수를 확인하여 이들 변수를 통제하였다.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이와 학년이 확인되어 이들 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본 결과 2.048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가 .323~.968으로 나타나 .1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33~4.299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0.484$,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405로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4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beta=.222$, $p<.001$)과 문화적 공감($\beta=.422$, $p<.001$)은 모두 문화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적 공감, 다문화 인식의 순으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ffed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e (N=201)

Variables	B	SE	β	t
Multicultural awareness	.272	.077	.222	3.535***
Cultural Empathy	.518	.080	.422	6.481***
Ad. $R^2=.405$, $F=20.484$ ***, Durbin-Watson=2.048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도 개별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은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52점으로 Nam[8]의 연구에서 3.86점, Cho와 Sok[11]의 연구에서 3.80점, Choi[11]의 연구에서 3.81점을 나타낸 것 보다 낮았다. 문화적 공감은 평균 3.55점으로 Kim과 Sin[15]의 연구에서 3.39점, Kwon과 Son[13]의 연구에서 3.48점으로 나타난 것 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화적 역량은 평균 3.67점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평균

3.20-3.45점[8-14]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의 경우 측정도구의 상이함으로 인해 점수를 비교하는데 제한적이며, 동일 도구로 측정된 문화적 공감과 문화적 역량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공감,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연구결과[8-11]와 일치하였으며, 문화적 공감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연구결과[13-15]와 일치하였다.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인식은 문화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역량과의 인과성을 확인한 선행연구 중 다문화 인식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8,11]와 일치하였고, 문화적 공감 또한 문화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적 공감이 문화적 역량의 영향변수로 확인된 연구결과[13,15]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지적 영역으로는 다문화 인식을, 정의적 영역으로는 문화적 공감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문화적 역량에 대한 두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공감, 다문화 인식의 순으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할 때 다문화 인식보다는 문화적 공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에 더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인식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다문화 대상자를 접촉하면서 자원봉사나 돌봄 활동을 한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4,25].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동영상, PPT, 강의, 성찰 일지 등의 간접경험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는 공감능력의 변화가 미미하였고[26], 간접경험 활동과 동시에 다문화 대상자와 직접적인 접촉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는 공감능력의 향상이 뚜렷하였다[2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내에 이론교육 외에 실제적으로 다문화 대상자를 경험할 수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활동들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과 활동으로는 실제 다문화 대상자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 교과목에 다문화 인식 및 문화적 공감 역량을 연계하는 것이다. 국내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4학년 졸업시점에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교과목에 연계한다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실제적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방안이 된다. 또한 교과 외 활동으로는 멘토링이나 동아리 등을 다문화 대상자와 함께 할 수 활동들로 구성하고, 다양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및 국내·외의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적 역량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일반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census of population-Foreigner(2015-2018), Available From: <http://kosis.kr/index/index.do?sessionid=vEV2ypDT6LSCJ5DtIiNWv9ztr09d0e8bTzOYCaSHJw1oaJxJ4Z0L3pSx02kpwzPK.STAT.SIGA2.servlet.engine1> (accessed Nov. 2019)
- [2] Y. J. Kim, J. Y. Lee, S. H. Cho, "An explorative study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3, pp. 251-283, 2011.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1.31.3.251>
- [3] M. J. Kim, "A comparison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relating fact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4, pp.2310-2319,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310>
- [4] S. Y. Han, H. I. Chung,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45, No.5, pp.684-693, 2015. DOI: <https://doi.org/10.4040/ikan.2015.45.5.684>
- [5] E. E. Suh, "The model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5, No.2, pp.93-102, 200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10.190>
-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tandard Book(a bachelor's degree course),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 (accessed Nov, 2019)
- [7] N. Y. Lee, Y. S. Eo, J. W. Le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1, pp.16-27,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1.16>
- [8] H. R. Nam,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ulticultural Perception on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Korean J Health Commun*, Vol.14, No.2, pp.125-131, 2019.
- [9] J. H. Lim, "The Path Analysi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2, pp.393-402,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12.393>
- [10] Y. M. Cho, S. H. Sok,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Cultural Competence up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9, No.10, pp.190-197, 2019.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9.19.10.190>
- [11] S. 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pp.3379-3390, 2017.
- [12] Y. A. Choi, T. W.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0, No.3, pp.597-610, 2019.
- [13] S. H. Kwon, H. K. Son, A. L. Han, Y. J. Kim, K. H. Choi,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2, pp.1069-1081, 2017.
- [14] H. J. Park, N. H. Kim,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Empath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4, pp.487-498, 2017.
- [15] M. S. Kim, D. S. Shin,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pp.3437-3450, Dec. 2016.
- [16] J. H. Byun, "A Study on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Multicultural Awarenes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6, No.4, pp.163-185, 2011.
- [17] S. L. Davis, S. J. Finney,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6, No.2, pp.318-330, 2006.
- [18] S. Y. Hong, B. D. Son, J. H. Son,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Multiculture & Peace*, Vol.12, No.3, pp.300-324, 2018.

- [19] J. Y. Kim,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45, No.45, pp.5-34, 2017.
DOI: <http://dx.doi.org/10.16975/kjfs.w.2014..45.001>
- [20] Ridley, C. R., Lingle, D. W.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SAGE Publishing, 1996, pp.21-46.
- [21] N. 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wareness scal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30-32, 2011.
- [22] Y. W. Wang, M., Davison, O. F. Yakushko, H. B. Savoy, J. A. Tan, J. K. Bleier,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0, No.2, pp.221-234, Apr. 2003
- [23] J. Y. Kim,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pp.194-195, 2013.
- [24] J. Choi, J. A. Kim, “Correl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Vol.9, No.4, pp.67-88, Dec. 2016.
- [25] Kwon, S. H., Kim, M. S.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1123-1135, 2016.
- [26] E. H. Peek, C. 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3, No.5, pp.690-696,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 [27] K. S. Kang, M. S. Park,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on Cultural Competency, Empathy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eam-bas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9, pp.925-934, Sep.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9.81>

김 경 하(Kyo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인간심리